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21. 2. 17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허경민, 사무관 신우철 • ☎ (044) 201-4219, 4223
보 도 일 시		2021년 2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7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에어프리미아,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'19.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리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\*한다고 밝혔다.

\* 당초 : '21.3.5까지 신규 취항 → '21.12.31까지 신규 취항

- 에어프리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('19.3.6) 당시 1년 내 운항증명(AOC) 신청,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,

- 에어프리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(Boeing)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\*되어 운항 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,

\* 당초 '20.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, '21.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

-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('20.12.28)받아 청주-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,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.
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'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「'21년 3월 5일까지 취항」해야 한다는 조건을 「'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」할 것으로 변경하였다.

\*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 :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

-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·회계·항공·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.
-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하면서,
  - “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,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신우철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